



이 명 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앞으로 한국고분자학회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학회발전에 매진해 오신 역대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고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4천5백여 명의 회원과 전국에 4개의 지부를 갖춘 고분자 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분자는 전통적 산업의 관점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 정보전자기술은 물론 각종 산업용 소재와 생활소재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요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도 고분자화학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고분자학회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님들과 모든 회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결과로, 고분자분야의 학문발전에 이바지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한림원과 조길원 현 회장님과의 인연을 소개해드리면, 조 회장님께서 지난 2009년 우리 한림원의 공학부 회원에 선출되신 이후, 관련분야에서 꾸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해오고 계시는 고분자분야의 석학이십니다.

특히 조 회장님께서 우리 한림원이 지난 2015년에 시행한 제 9회 덕명한림공학상의 수상자 이시기도 합니다. 덕명한림공학상은 공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과학기술자를 선발 포상하는 사업으로, 당시 조 회장님께서 유기반도체 소재의 표면유도 분자배양 기술 개발과 고성능 유기전자 소자 및 인쇄전자 분야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기에 앞으로 한국고분자학회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분자 관련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고분자학회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 명 철**